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_ <http://www.daegujobo.or.kr>



헨드릭 반 발렌, 『광야에서 설교하는 세례자 요한』 (1622).
캔버스에 유채, 벨기에 안트워르펜 왕립미술관.

† 오늘의 전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루카 3,1-6 참조)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세상의 온갖 소리 가운데에서 요한의 외침을 듣게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불의와 고통 속에 사는 이들을 위하여 찾아오신다는 구원의 목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제1독서 바룩 5,1-9 **제2독서** 필리 1,4-6,8-11 **복음** 루카 3,1-6.

입당송 보라, 시온 백성이야.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화답송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회개하는 삶

박창환 레오 신부 | 대신본당 주임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한 죄의 고백만도 아니며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중심 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자기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세속을 의지하여 살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삶의 방향이 하느님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향하여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과다한 경쟁과 상대적인 비교 안에서 오로지 믿을 것은 자신과 세속의 힘뿐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하고, 자신의 의지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며, 자신의 힘으로 치유와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일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넘어지고 무너지면서 자신의 한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수영을 배우는 사람에게 몸에 힘을 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힘을 빼고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 몸이 물에 뜨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힘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느님 뜻에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하느님 현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알기에 자신을 봉헌할 수 있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며 서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집 나간 철부지 아들도 사랑으로 기다리고 받아주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허물 많고 부족하다 해도 그 앞에 좌절하고 주저앉기보다 하느님을 향해 내 몸과 마음을 돌려 그분께 달려갈 때 회개의 삶은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그렇게 우리 삶의 방향을 하느님께 돌리면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길을 곧게 내고 다듬는 시간입니다. **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제34회 인권주일 · 제5회 사회 교리 주간 담화문(요약)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창세 1,26)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강생의 신비를 묵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 시기에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평화의 은총이 모든 분들께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날 세계는 전쟁과 테러, 난민의 증가 등으로 인간 생명의 고귀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비극적 참사를 비롯하여 시리아의 내전과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말리 등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참사로 고귀한 생명들이 숨져가고 있습니다. 북한 형제들의 인권문제도 UN에서 의제로 다룰 만큼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도 심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노동할 권리의 안정성을 해치고 노동자들의 해고를 더 쉽게 하여 비정규직을 늘어나게 만들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이 왜곡된 보도와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오해되고 폄훼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11월 14일 시민들의 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과도한 진압으로 수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하여 그 중 한 농민이 위중한 상태에 계신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부상당한 경찰들에 대하여도 빠른 쾌유를 빕니다. 과격시위도, 과잉진압도, 편파수사도 국

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와 소통을 위하여 결코 받아들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정부는 왜 수많은 국민들이 모였고, 그들이 외치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귀를 열고 듣고, 언론은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기를 요청합니다.

만연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그리고 물질만능의 소비주의가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성공과 승리가 나눔과 배려의 자리를 대체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인권을 해치고 있음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순간, 하느님의 신비에 자신을 개방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사랑에 의탁할 때 그 사랑만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사회의 비리를 고발하고 제안하여 개혁하는 진정한 용기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시작되는 자비의 희년과 함께 대림의 은총이 더욱 풍성하게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에 대한 믿음, 충만한 정의에 대한 바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며 인류를 참 형제자매로 만드는 사랑을 드러내어 교회 뿐 아니라 인류 사회 전체를 참 정의와 사랑의 지평으로 인도하기를 희망합니다.

2015년 12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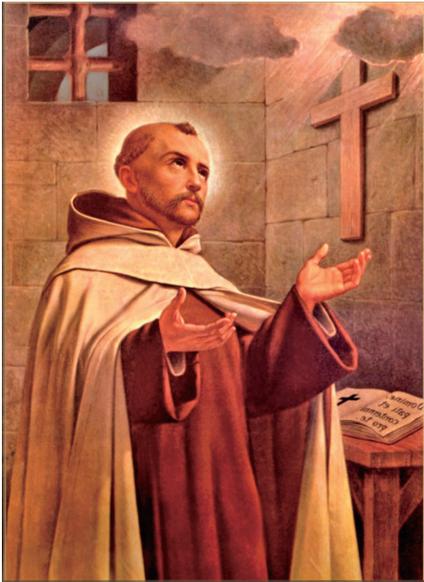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흥식 주교

이달의 성인

십자가의 성 요한

(1542~1591. 신비가, 교회학자. 축일 : 12월 14일)



16세기는 이른바 종교 분열의 시기로 이단과 이교가 난립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한 많은 사람들은 참 진리를 버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교회의 쇠신에 앞장서고 열렬한 전교로 쇠퇴되어 가던 교세를 다시 회복시켜 나간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 많은 성인들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와 함께 가르멜 수도회의 개혁을 주도하여 맨발의 가르멜회를 창설하신 십자가의 요한 성인입니다.

성인께서는 가르멜의 수도자이자 사제로 당시 퇴폐한 시대사조의 영향으로 나타해진 가

르멜회의 환경과 생활방식에 회의를 느끼던 중에 가르멜회의 개혁을 준비하고 계시던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데레사 성녀의 개혁 의지에 동감하신 요한 성인께서는 가르멜회의 최초 규칙으로 돌아가 실천하겠다는 서약과 함께 이름도 '십자가의 요한'으로 바꾸었습니다. 가난과 금욕, 고행을 통해 가르멜 수도회 본래의 은수적, 관상적 수도생활을 실천하고 맨발로 다니며 사도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인의 개혁을 반대하던 이들은 성인을 모함하여 수도원의 지하 동굴에 감금시켰습니다. 그러나 곧 성인의 성덕과 결백함이 드러나게 되었고 비오 5세와 그레고리오 13세 교황님으로부터 맨발의 가르멜회는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개혁을 둘러싼 분쟁이 재현되면서 성인께서는 반대자들의 지속적인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결국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신 성인께서는 열병에 걸려 1591년 12월 14일에 선종하셨습니다.

교회의 위대한 신비가 중의 한 분이신 성인께서는 '어둔 밤', '가르멜의 산길', '영혼의 노래', '사랑의 산 불꽃' 등과 같은 수많은 신비신학의 명저를 남기셨고 1726년 베네딕토 13세 교황님에 의해 시성되었으며 1926년 비오 11세 교황님에 의해 교회박사로, 1993년에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 스페인 언어권의 모든 시인들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필독**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인간은 이토록 슬픈데 주님, 바다는 너무도 푸릅니다

일본 나가사키 소토매에는 멀리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위와 같은 글귀가 새겨진 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일본의 대표적인 현대 소설가 엔도 슈사쿠를 기리는 ‘침묵의 비’입니다.

‘인간이 고통 받을 때 하느님께서서는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물음에 엔도 슈사쿠는 그의 대표적인 소설 《침묵》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고통 받는 이들과 하나가 되어 함께 고통 받으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도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 있었다. 나를 밝아라. 나는 밝음을 받으러왔다.”(《침묵》중에서)

가톨릭 신자였던 이모의 영향으로 열두 살에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된 엔도 슈사쿠(1923년~1996년)는 프랑스 리옹대학에서 현대 가톨릭문학을 공부하다가 결핵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돌아와 본격적으로 창작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종교와 인간에 대한 성찰이 녹아 있는 묵직한 주제의 작품들을 비롯해 밝고 유머

러스한 문체로 일상적 이야기들을 써내려간 산문에 이르기까지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톨릭문학과 순수문학을 잘 아우른 격조있는 작품들로 양쪽에서 모두 성공적 평가를 받은 행복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노벨문학상 후보에까지 오른 그의 대표작 《침묵》은 13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독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일본문학 작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96년 선종하였으며 생전의 뜻에 따라 《침묵》과 《깊은 강》 두 권을 관 속에 함께 묻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그의 《침묵》을 원작으로 미국의 영화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만든 리암 니슨 주연의 영화 「침묵」이 미국에서 개봉되었고 곧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필문**



금주의 성인

12월 6일	성 니콜라오(주교, 미라, 270-341년경), 성녀 디오니시아(증거자, 484년) 성녀 레온시아(증거자, 484년)
12월 7일	성 세르보(순교자, 484년), 성 암브로시오(주교, 교부, 교회학자, 밀라노, 339-397년) 성 에우티키아노(교황, 순교자, 283년)
12월 8일	성 로마리코(수도원장, 653년), 성 에우카리오(베드로의 제자, 주교, 트리어, 1세기경)
12월 9일	성녀 고르고니아(증거자, 372년경), 성 베드로 푸리에(신부, 설립자, 1565-1640년)
12월 10일	성 그레고리오 3세(교황, 741년), 성 멘나(순교자, 312년), 성 제멜로(순교자, 362년) 성 멜키아데(교황, 증거자, 314년), 성녀 에울랄리아(동정 순교자, 메리다, 304년)
12월 11일	성 다마스 1세(교황, 305-384년), 성 바르사바(수도원장, 순교자, 342년) 성 사비노(주교, 피아첸차, 420년), 성 푸시아노(순교자) 성 랑코 리피(수사, 통회자, 시에나, 211-1291년)
12월 12일	성 막센시오(순교자, 287년), 성 비첼린(주교, 올텐부르크, 1086-1154년) 성 핀니안(주교, 수도원장, 클로나드, 470-549년)

■ 다사성당 새성전 봉헌식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1월 22일(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사성당 새성전 봉헌미사를 집전하셨다.

■ 샛터근린공원 배식봉사



대주교님께서는 11월 26일(목) 오후 12시부터 대구시 동구 율하동에 위치한 샛터근린공원에서 배식봉사를 하셨다.

사진제공 : 월간빛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 49주간, 2015. 12. 6. ~ 12. 12. >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2코린1-5장	6-9장	10-13장	갈라티아서	에페1-3장	4-6장	필리피서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코린토 2서』

- 바오로의 사도직을 중심으로 한 '화해의 편지'(1-7장) - 예루살렘교회를 위한 모금(8-9장) - 사도로서의 인간적 자격과 신앙 차원의 심화를 다룬 '눈물의 편지'(10-13장)

『갈라티아서』

- 자신이 돌보는 지역 교회들의 믿음을 바로 잡고 튼튼하게 정립하려는 열성에서 쓴 편지.

『에페소서』

- 복음 선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써 우주역사적 적대감을 없애고 하느님-인간, 인간-인간 사이를 일치와 화해로 이끄는 하느님의 위업을 알리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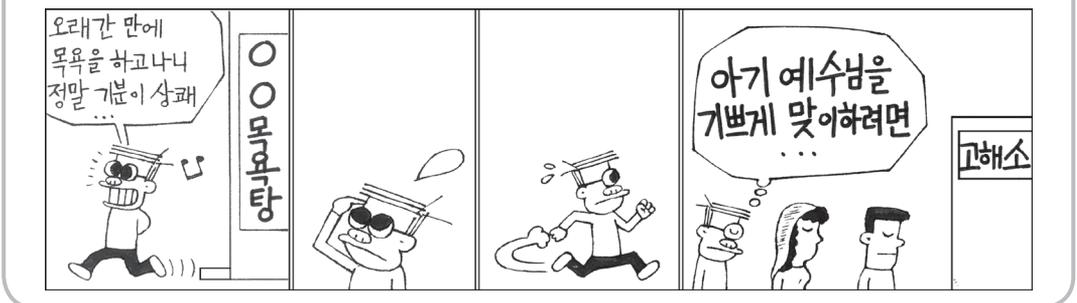
『필리피서』

- 바오로 자신의 선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헌금을 보내 준 필리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애정 어린 감사의 편지.

문의 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사도요한) 신부, 250-3070

마음도 깨끗이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7일(월) 11:00 성동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2월 7일(월) 11:00 죽도성당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12월 7일(월) 11:00 계산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2월 7일(월) 19:30 꾸르실로 교육관 성당
		대구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12월 9일(수) 19:30 교구청 별관302호

성소 | 피정

살레시오회 성소 모임

일시: 매월 둘째주 토요일
장소: 가톨릭근로자회관
대상: 살레시오회에 관심 있는 30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문수민 신부, (010)9487-9182

성바로팔수도회 성소 모임(테클라 모임)

일시: 12.7(월) 19:00
장소: 바오로팔서원(동성로)
대상: 미혼 여성 / (010)2503-5185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성탄전례피정

기간: 12.23(수) 16:00~25(금) 13:30
장소: 성베네딕도왜관피정의집
참가비: 15만 원 / 농협, 301-0087-0776-61(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54)971-0722 / (010)3567-6083

교육 | 모집

예수마음기도(권민자 수녀 지도)

청년(3박 4일): 2016.1.7~10
예비 고3(2박 3일): 2016.1.24~26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010)4906-5722(피정비 10만 원)
주최: 예수마음선교수녀회

가톨릭신자를 위한 스페인어 초급반 모집

가톨릭근로자회관에서는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5차원전면학습교청리더십 특별과정

기간: 12.29~31(42차) / 1.25~27(43차)
장소: 구미선산청소녀수련관
대상: 초·중·고·대생(선착순 30명)
다음카페: 우아청 참조 / 28만 원
문의: 살레시오수녀회, (010)3883-7004

2016 살레시오회 초등부 겨울 신앙학교

기간: 1.7(목)~8(금) / 12(화)~13(수) / 14(목)~15(금) / 16(토)~17(일)
장소: 살레시오청소녀수련원(대전)
주제: 예수님과 새롭게 즐겁게
접수: (042)584-0654(본당별 선착순)

살레시오 겨울 신앙학교

일시: www.fmayouth.or.kr 참조
장소: 광주광역시청소녀수련원
주제: 성인이 됩시다
문의: 살레시오수녀회, (062)373-0942

김길수 교수와 함께하는 일본 성지 순례

일본 성지 순례 4박 5일, 58만 원
문의: 천주교사도직회(팔로티회)

(010)4239-1929

제11회 평화방송 가톨릭 영어캠프

예수회 신부님 영성수업과 성지 순례
기간: 1.3(일)~30(토), 4주
장소: 필리핀 마닐라 클리리조트
대상: 초 2학년~중 3학년
문의: (02)734-0999 / www.pbc.co.kr

제47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초·중·고: 1.6~2.12(3, 5주 선택)
대·일반: 1.3~2.14(6주, 장기 선택)
세계 학생들과 함께 수업
문의: 그린피스 이엔티, (02)3446-4253

대구시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모집: 청소년영어캠프, 부모동반연수
대학생 영어연수·해외봉사
지역: 필리핀 바콜로드 대학부설센터
출발: 1.3(청소년 4주, 대학 8주 이상)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더편한내과
"아름다운 건강의 약속" 더 편한 내과가 함께 합니다.
부설: 건강검진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월배로 470
군청빌딩 3층 (구 달성군청)
원장 윤석진 (야교보) ☎ 053)651-7585

대구연세안과
아이디진리안·렌즈삽입술·노안수술·백내장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원장 박충원(소시모)
현.연세대의료교수 원장 박충원(소시모)
☎ 053)626-8881~5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발아정형외과
발아플랜 AL-A
무지외반증 수술 전문
지간신경증 | 족저근막염 | 평발치료 | 발목내시경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 방향 500m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대한물리치료학회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번더 맞은편)
☎ 053)942-8822

달성피부과
ME 66차 부부의
의학박사 / 피부과전문의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제지나)
아토피센터·여드름·흉터·주름·탈모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566-4333

대구그리다스튜디오
설레임으로 다가와 추억을 그리다!
가족촬영 | 우정촬영 | 리마인드 촬영 | 웨딩전문촬영
드레스대여 | 텍시도대여 | 메이킹 · 헤어디자인
김대현(프란치스코)
☎ 053)424-7777 | 010-2112-8236

발아정형외과
분도의 한방을 기름이 내일을 만드는 기적의 에너지가 됩니다!
정직한 분도
전화 한통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 080-421-5151 (무료전화)
053)424-2240, 743-1977, 957-9543
대표 김현철 (베네딕도)

행사 | 모임

제27회 대구가톨릭음악원 성음악 발표회
 일시: 12.10(목) 19:30
 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 전좌석 1만 원
 문의: 255-4847

대구가톨릭미술가회 찾아가는 미술관
 기간: 12.12~13, 삼덕성당 1층 강당
 목적: 동대구역 무료급식나누기 지원

12월 한티 힐링 피정
 기간: 12.19(토)~20(일)
 주제: 외딴곳에서 좀 쉬자
 지도: 여영환(오토) 신부
 문의: 한티순교성지, (054)975-5151

교육 | 모집

사회교리주간 특강-회칙(찬미받으소서)
 일시: 12.9(수), 12.11(금) 19:30~21:00
 장소: 대신학원 대강당
 주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문의: 250-3163 / (010)9544-1838

2016 가톨릭교리신학원(통신) 신입생 모집
 접수: 11.16(월)~2016.2.12(금)
 과목: 신·구약, 신학일반(전례학 등)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12월 지성인을 위한 토요신앙 특강
 일시: 12.12(토) 10:00~12:00

장소: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남산동)
 주제: 침묵의 크리스마스
 강사: 박민서(베네딕도) 신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바로로 모래놀이 상담센터
 대상: 학교부적응, 우울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 겪는 아동 청소년·성인
 운영: 샬트르성바로수녀회
 모래놀이 전문치료사 박지선 수녀
 문의: (010)4600-2433 / 659-3333

채용 | 안내

교구 법원 공시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박대준, 김진용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교구청 경비직원 채용
 자격: 만 4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신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제출마감: 12.11(금) / 인원: 1명
 신청: 교구 관리과, 250-3030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천주교대구대교구에서 출자하고 매일신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일상조에서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427-4400

약목성당 청국장 판매
 목적: 오르간 및 성당엠프 교체
 100% 국산콩으로 직접 제조
 가격: 두메 청국장 700g에 1만 원
 4개 이상 택배비 무료
 문의: (054)974-5055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5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교구에서 출제한 상조회사는 (주) 매일상조 한 곳 뿐입니다. 이 외에 가톨릭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는 교구와는 무관합니다.

2016년 신앙다이어리
 보다 세련되고 슬림한 사이즈의 2016년도 신앙다이어리가 출시됩니다.
 판매: 1만 원
 신청: 교구 문화홍보실, 053)250-3047~9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4790-3888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임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센터 03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주)한투어 한투어 성지순례전문
 2016년 6월초 산티아고 도보순례단 모집
☎ 053-427-7090
 안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움산부인과
 보형공단 저공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여성성형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장 호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목조전원주택 분양/시공
21C HOUSING
 21C 주택산업 이경수 마리아
 경산조폐공사정문 앞
(053)817-0322 | 010-2624-0322

since 1999
성모아이한의원
 감기출입/성장(식욕부진·수면장애)/아토피/야뇨
 소아간질(경기)/틱·ADHD/발달장애
한 의 학 박사 김성철(비오)
 동국대한학과 외래교수
대표번호 1588-3386
 대구 범어역 3번 출구 애플타워 8F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강남에너타워 4F